

연예뉴스 스테이션

포미닛 결국 해체…큐브, 현아만 재계약



걸그룹 포미닛(사진)의 해체가 최종 확정됐다. 멤버 현아를 제외한 남지현·전지윤·허가운·권소현은 15일자로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큐브는 16일 “4명의 멤버와 재계약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심사숙고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사는 멤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들의 앞날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포미닛은 2009년 ‘핫이슈’로 데뷔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 패소



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렸다는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배상하지 않고 은닉 등의 수법으로 피하려 했다면 2013년 12월 피소돼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달 3일, DJ 김광한 1주기 추모 음악회

지난해 7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DJ 김광한의 1주기 추모 음악회 ‘리멤버 DJ 김광한’이 7월3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고인의 팬클럽인 ‘다음 팝스다이얼가까’에서 주최하며 (사)한국방송디스크자기협회에서 주관한다. 국내에서 라디오 DJ를 추모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크가수 임지훈, 1980년대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김준원이 무료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고 김광한은 1980년대 KBS 2FM ‘김광한의 팝스다이얼’을 통해 인기를 끌었으며,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CBS 라디오에서 ‘김광한의 라디오 스타’를 진행했다.

SM, 10월1·2일 스펙트럼 뮤직 페스티벌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가 대규모 댄스 뮤직 페스티벌 ‘스펙트럼 뮤직 페스티벌’을 10월 1·2일 이틀간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 ‘더 넥스트 뮤직 파라다이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EDM 힙합 등 다양한 장르는 물론 케이팝 스타들까지, 댄스뮤직 전반을 아우르는 뮤지션과 DJ 등 약 60명이 참여한다. 무대 위주의 구성이 아닌, 공간의 콘셉트와 아티스트 라인업의 조화가 극대화된 테마파크형 뮤직페스티벌로 펼쳐진다.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향후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개최될 계획이다.

방심위, ‘음악의신2’ 관계자에 징계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신2’ 관계자에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6일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안전으로 상정된 ‘음악의신2’에 대해 “방송의 질이 낮다”는데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 관계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출연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남성 출연자가 탁구공을 입에 넣었다가 여성 출연자에게 뺨을 장면 등도 지적됐다.

공연 랭킹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송일국
2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홍광호
3	뮤지컬 〈울속엔〉	황성
4	뮤지컬 〈애드거 앨런 포〉	마이클 리
5	뮤지컬 〈스위니토드〉	조승우
6	렉츠락 페스티벌	국가스텐
7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애슐리 쇼
8	뮤지컬 〈삼총사〉	카이
9	청년 대규모 힙합 페스티벌	팔로알토
10	뮤지컬 〈모차르트〉	이지훈

편집 | 교창일 기자 ico@donga.com



‘누나들 설렘 준비되셨습니까?’ 케이블채널 엠넷과 tvN의 케이팝 프로젝트 ‘소년24’ 출연자 49명이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 세계에 열린 오디션 지원자 5500명과와 경쟁에서 선발된 이들 중 최후에 웃는 사람은 단 24명이다.

‘닥터스’의 멜로나, ‘뷰티풀 마인드’의 미스터리나

위클리 매치 | 월화극 대전

두 드라마 모두 신경외과가 배경
박신혜·박소담 연기변신도 눈길

세 월화드라마 KBS 2TV ‘뷰티풀 마인드’와 SBS ‘닥터스’가 20일 동시간대 격돌한다. 같은 날 첫 방송하는 것은 물론 의학드라마라는 장르, 더욱이 극중 배경이 신경외과라는 공통점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자극시킨다. ‘뷰티풀 마인드’는 장혁·박소담이 주연이고, ‘닥터스’는 김래원·박신혜가 주연을 맡았다.

공통점 많은 두 드라마가 치열하게 펼칠 시청률 경쟁도 불가리이지만, 침체된 월화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멜로 vs 스릴러

두 작품은 의학드라마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서로 신경의



‘같은 듯 다른 듯’ 20일 밤 10시 SBS ‘닥터스’(왼쪽사진)와 KBS 2TV ‘뷰티풀 마인드’가 격돌한다. 나란히 신경외과가 배경이지만, 세부 내용은 서로 달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예고된다.

과가 주된 공간으로 등장해 현미경으로 세심하게 수술하는 모습도 비슷하게 그려진다. 연기자들이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고 의학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대본 리딩을 많이 하는 제작과정도 동일하다. 그러나 두 드라마는 의학드라마라는 큰 틀 안에 서로 다른 장르를 표방한다. ‘닥터스’는 멜로적 요소가 주를 이루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반면 ‘뷰티풀 마인드’는 형사물이 결합된 감성미스터리 의



‘같은 듯 다른 듯’ 20일 밤 10시 SBS ‘닥터스’(왼쪽사진)와 KBS 2TV ‘뷰티풀 마인드’가 격돌한다. 나란히 신경외과가 배경이지만, 세부 내용은 서로 달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예고된다.

학드라마다. 의학적인 전문성은 ‘뷰티풀 마인드’가 더 많다. 이에 드라마의 배경인, 병원에 대한 각 드라마 연출자의 생각도 다르다. ‘닥터스’ 오창환 PD는 “아플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극적인 공간”이라고 밝혔고, ‘뷰티풀 마인드’ 모완일 PD는 “매번 만나는 의사를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안 하는데, 그걸 생각할 계기도 제공될 장소”라고 말했다.

●박신혜 vs 박소담

두 드라마의 PD가 던진 승부수는 여주인공들이 박신혜와 박소담이다. 탄탄한 연기력의 20대 두 여배우의 연기력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이번 드라마에서 기존 역할과는 다른 연기변신을 시도한다. 박신혜는 그동안 밝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막무가내에 야생미 넘치는 역할을 맡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성숙미까지 드러낸다. 박소담

역시 스스로 “항상 현실성과 거리가 먼 캐릭터를 연기해왔는데 이번에는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했다. 두 여주인공에게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오창환 PD는 “드라마를 연출한 이래로 배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기는 박신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모완일 PD도 “박소담은 다른 배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과 딱 맞아떨어지고 너무 잘한다. 에너지와 여러 면에서 다른 배우를 생각하기 힘들었다. 캐스팅을 위해 방송 전일까지도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각 드라마의 PD는 공통적으로 “성장드라마”라고도 했다. 반향기 많은 불량학생 박신혜는 김래원을 만나 성장해가고, 신경외과 의사 장혁은 공감능력이 거의 없지만 점차 개선하며 자아를 발견한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평일 밤 지상파 드라마 ‘볼 게 없네’ 프라임 시간대 시청률 10%도 버거워

지상파 3사의 평일 밤 드라마모션 ‘굴욕의 연속’이다. 평일 밤 10시 방송하는 월화, 수목드라마는 광고단가(1348만5000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준)가 가장 비싼 프라임 시간대다. 그래서 방송사의 ‘꽃’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방송중인 월화, 수목 드라마 가운데 시청률 10%를 겨우 넘은 드라마가 단 두 편에 불과하다. 비싼 ‘값어치’도 못하고, 그 빈자리에 어두운 그림자만 비추고 있다.

그나마 지난달 30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마지막 회에서 17.4%(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간신히

방송사의 체면을 세워 준 정도다. “불만만 드라마가 없다”는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교양프로그램이 오히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13일 방송한 KBS 1TV ‘가요무대’는 11.0%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방송한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한 KBS 2TV ‘백희가 돌아왔다’가 10.0%, MBC ‘몬스터’는 10.4%, SBS ‘다바’는 9.2%였다. 수목드라마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15일 방송한 KBS 2TV ‘마스터·국수의 신’(국수의 신) 6.9%, MBC ‘운빨 로맨스’ 9.8%, SBS ‘판따라’

7.5%를 각각 기록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는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로 10.6%였다. ‘국수의 신’의 전작인 ‘태양의 후예’가 38.8%를 기록하며 ‘집 나간’ 시청률을 다시 돌려놓은 듯 했지만, 흥행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은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했음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운빨 로맨스’도 ‘호랑이띠 남자와 자야한다’는 미신을 개연성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설득력을 잃었고, ‘판따라’도 선악, 희비의 극적요소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장르물 퀸’ 김아중

2011년 ‘싸인’, 지난해 ‘편지’
올해도 ‘원티드’ 수사물 도전

‘장르물 퀸’의 탄생이다. 연기자 김아중(사진)이 연이어 장르 드라마에 출연해 눈길을 모은다. 전작의 흥행을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아중은 22일부터 방송하는 SBS 새 수목드라마 ‘원티드’를 통해 수사물에 다시 도전한다. 2011년 방송한 SBS 드라마 ‘싸인’, 지난해 ‘편지’에 이어 세 번째다.

‘원티드’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 정혜인이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인의 요구대로 미션을 수행하는 스릴러 드라마. 김아중이 정혜인 역을 맡았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한 톱스타의 절절한 모성에, 회를 거듭할수록 치밀해지는 김아중과 범인의 두뇌게임 등이 시청 포인드다.

제작진은 장르물에 최적화된 김아중을 캐스팅하기 위해 삼고초려 했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16일 “김아중은 캐릭터 분석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면서 “이 같은 장점은 앞서 선보인 드라마



에서 모두 입증됐다. 카리스마 강한 연기 등 다재로운 연기를 펼쳐보일 수 있어 작가가 대본을 쓰는 단계부터 김아중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아중이 한창 영화 ‘더 킹’ 촬영 중이라 스케줄 조율이 어려웠지만, 캐릭터를 소화할 인물에 가장 제격이라 판단해 캐스팅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아중은 ‘원티드’를 통해 코미디와 멜로에 강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자신만의 연기 커리어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정연 기자